

# “감염 확산부터 막아야”... 상반기 채용 연기·취소 잇따라 10대 기업 공채일정 ‘안갯속’

대기업 공채진행, 지난해와 대조적  
10대 기업 중 공채일정 밝힌 곳 없어  
구직자 61%, 코로나에 구직불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기업들이 잇따라 채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연기를 검토하면서 상반기 채용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2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주요 기업의 공채 윤곽은 2월 중 드러났으나, 올해는 공채를 연기하거나 전형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24일 채용 면접 일정을 연기했다. 채용 면접 대상자에 면접 일정을 연기한다고 개별 문자를 보낸 것. 지난해부터 수시채용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선발 중인 현대차는 올해 계획한 신입사원 각 채용부에서 서류전형에 마친 뒤 직무별 면접을 앞

〈대기업 상반기 채용변경안〉

기업명	상반기채용 변경안
현대자동차	면접 일정 연기 합동교육 잠정중단
삼성전자	SW 역량테스트 3월 연기
LG그룹	상반기 채용일정 4월 이후로 연기
SK그룹	채용공고·필기시험 연기검토
GS그룹	계열사 채용일정 연기검토

/자료=인크루트

두고 있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6일 2020년 신입사원 합동 교육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3급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SW)역량테스트를 지난 15일에서 다음 달로 연기했다. LG는 올해 신입사원 공채일정을 4월 이후로 연기했고, SK그룹과 GS그룹 역시 계열사별 채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재고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조되는 모습으로, 10대 기업 중 상반기 공채 윤곽을 밝힌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지난해의 경우 LG화학은 2월27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했고, 이어 SK그룹과 KT그룹은 3월4일부터, CJ그룹은 3월5일, 삼성은 3월12일부터 계열사별 순차모집을 시작했었다. 롯데그룹도 3월20일, 포스코는 4월2일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선발을 진행했다.

한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지난 11,12일 구직자 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1.1%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구직준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구직자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로는 ‘채용 연기’(25.8%), ‘채용전형 중단’(24.2%), ‘채용규모 감소’(21.7%), ‘채용취소’(9.0%), 등으로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마련한 버스에 탑승하기 전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 中 유학생 휴학 권고에 대학들 재정 타격 등 사면초가

대학 中 유학생 등록금 최대 10%  
온라인 강의 시스템 비용 부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부가 중국 유학생에게 휴학을 권고하고 중국 체류 중인 유학생을 위한 온라인 수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학들은 휴학생이 증가해 가뜰이나 어려운 대학재정에 타격을 입는지 우려하고 있다. 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추가로 내놓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휴학을 권고하고, 현지에서 학업을 이어가도록 원격수업 등의 학사제도를 제공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장 바쁜 건 대학들이다.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이 내는 등록금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로 이들이 대거 휴학할 경우 대학 재정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다. 대학들은 특히 올해까지 12년째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2중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들의 휴학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의 휴학 현황을 살펴봐야 하지만, 휴학 신청은 보통 개강 이전부터 개강 이후 3~4주까지 가능해 올해 개강

일정이 1~4주 가량 연기됨에 따라 3월 말경 휴학생 통계가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휴학을 문의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휴학을 권고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총 7만979명 규모로, 1만9838명은 지난 2월 18일 이전에 중국에서 입국했고, 1만2753명은 국내에 머물러 총 3만2591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교육부는 중국 체류 유학생들이 다른 대학의 온라인수업을 수강해도 학점을 인정받도록 대학 간 학점 교류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마다 교육과정이 달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들이 휴학하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 학점을 이수하려면 대학들의 온라인강의시스템이 필요하다. 성균관대의 경우 오는 9일로 개강을 미루고 이후부터 2주간은 자체 온라인강의 시스템인 아이캠퍼스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의 경우 구글 기반 온라인강의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구글 접속이 불가능해 새로운 시스템 변경과 서버 증설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의 휴학 권고와 온라인강의 수강을 대책으로 발표했으나, 정작 이에 드는 비용 부담은 대학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



의료계,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대책 기자회견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현황 및 대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의학재단, 대한임상감사정도관리협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진단유전학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가 참석했다. /손진영기자 son@

## “상업망 아닌 자치단체 활용 마스크 공급”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 확산 기조에 추경 편성  
조기극복 위한 대책 중점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기조에 경제 둔화가 예상되자 이같은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본예산 중 2차 예비비를 확보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 관련법안 처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과급 영향 최소화화 조 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도 이번 주 중 마련해 발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 임대료 인하 방안이 포함된 건물주·자영업자세제 지원 혜택도 추경에 포함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봉쇄 조치는 방역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나선다는 뜻이다. 지역 출입을 막는 게 아닌 방역망 강화 차원에서 나온 조치인 것이다.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 의무 공급이란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 공급에 나선다는 뜻이다. 마스크 수출 물량 역시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다중집회 역시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정부, 대구·경북 집중관리 나선다

코로나 확진환자 977명, 사망자 10명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144명 늘어나며 누적 환자 1000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정부는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을 집중 관리해 추가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는 97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하루밤새 6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 오후 4시 까지 8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날 경북 지역에서는 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경북지역에서는 칠곡군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22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예천 극락마을 중사자 1명도 감염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 지역에서 사망자도 2명 추가 발생하며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칠곡경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 중이던 여성 환자(68세)가 사망했고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중인 59세 남성 환자도 사망했다.

대구 지역 확진자는 60명이 늘었다. 부산에서도 확진자 11명이 추가됐다. 경남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늘었고, 서울에서도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날 국내 대형교회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의 명성교회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